

## 일본의 양계업

### 산란계

#### 위생 강화 원란선별기

계란선별포장시스템 제조회사인 교와(共和)기계(주)는 신형 원란선별수용시스템(팜그레이더)을 판매하였다. 이 시스템은 이미 발매되어 호평을 얻고 있는 sky형 선란선별(洗卵選別) 포장시스템으로 「위생적이며 합리적인 계란선별시스템」을 계속해서 개발한 것으로 처리속도는 시간당 4만개의 속도이다.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은 계란을 물로 씻기 전의 상태에서 지정된 중량 범위별로 선별하여 용기에 수용하는 장치이다. 계란을 운송하여 용기에 넣기까지 계란이 닿는 모든 부분을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위생적인 면을 고려한 특징을 자랑한다. 예를 들어 (1)선별부에 탑재된 운송난좌(계란 운송장치)의 자동세척 기능을 구축하여 (2)계란무게를 측정하는 계측부위의 물 세척이 가능하다. 선별부보다 위쪽에 있는 부위는 (3)원란에 부착한 솜털을 제거하는 장치를 급란부에 부착하고 동시에 (4)배향장치(配向装置) (5)검란부 롤러를 자동 세척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원란선별수용시스템은, 실금란을 검사공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계란의 아래쪽에서 빛을 조사하는 종래의 육안검사에서는 숙련을 요구하였으나, 실금란의 자동 검출장치를 장착한 결과, 제품란의 품질향상과 검란의 자동화에 의한 경비절약을 동시에 실현하였다.

선별된 계란은 크기별로 포장장치에 분배된 후, 용기에 놓여지며 실금란은 별도의 전용 포장장치에 모아진다. 교와(共和)기계는 앞으로, 왕란과 극소란을 사전에 빼내어 선별하는 방식으로, GP센터의 계란선별포장시스템의 가동율과 제품화율의 향상이 예상되는 원란선별수용시스템의 판매에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다(계명신문 발췌).



윤 병 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전임연구원  
농학박사

#### 독자적인 시기금 조성- 미야자끼깡

미야자끼깡(宮崎縣)은 이달초 6월 지자체회의에서 6월 보정예산으로 제출한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으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사업」에 필요한 15억 9천만원과 가축보건위생소기능강화사업 5억8천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였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사업」은 발생에 따라 피해를 받은 양계농장에 대한 경영지원과 함께 재발장지나 긴급사태에 대비하는 체제정비의 강화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미야자끼모델이라고 불리는 경영지원대책의 내용은 (1)정부의 대상이외 부분인 발생인접농장에 대한 지원, (2)이동제한구역이외 농자의 출하지연 피해금 조성, (3)특수란 대책(정부의 조성 대상 이외 부분의 손실보전), (4)농장이나 처리장 합쳐진 독자의 손실보전기금조성(지자체 5억, 민간5억 합계 10억) 등이다.

재발방지 대책은, 동력분무기나 야생조류 침입방지 그물정비, 석회석 산포, 방역연습 실시 경비금 조성이며 위기관리 대책으로는 소독약이나 자재 등의 비축 등으로 되어 있다(계명신문 발췌).



## 육 계

### 2006년도 육계 도계성적 증가

농림수산성은 2006년도 닭고기 유통통계를 공표하였는데 2006년에는 약독형(H5N2형)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폐계의 도계수와 도계중량은 전년을 밀도는 수준이고, 브로일러나 토종닭, 브랜드 닭 등은 모두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전국의 닭고기처리수수는 전년대비 2.0%, 중량은 2.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류별로는 다음과 같다.

#### 1) 육계용(브로일러)

도계수수는 6억 2182만수로 2.5%, 중량은 193만 8,620톤으로 2.5%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유는 해외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일본산 닭고기의 수요증가로 보고 있다. 1수당 생체중은 2.815kg으로 전년보다 0.4%증가하였다.

#### 2) 기타 닭고기

육계용 중 부화 후 3개월 이상의 닭(일반적으로 토종닭, 브랜드 닭으로 불리는 닭)의 도계수수는 885만 1천수로 전년보다 3.6%, 중량은 4.1% 증가하였으며, 지자체별 출하수수의 비율은 도쿠시마켄(徳島縣, 阿波尾鶏 등)이 23%, 효고켄(兵庫縣, 丹波토종닭 등)과 미야자끼켄(宮崎縣, 宮崎토종닭 등)이 9%, 아이지켄(愛知縣, 名古屋코친 등)과 아끼다켄(秋田縣, 比内토종닭 등)이 8%였다.

#### 3) 폐계

도계수수는 8801만수로 전년의 99.0% 수준이며 도계중량은 15만 5,978톤으로 99.2% 정도였다.

#### 4) 그 밖의 식용 조류

오리, 메추리 등 닭 이외의 처리수수는 266만 6천수로 전년의 98.0%, 중량으로는 5,572톤으로 0.8%로 증가하였다(계명신문 발췌).

### 2007년도 양계 주요 시책

농림수산성생산국축산부는 전국축산과장회의를 열고 2007년도 주요 시책을 설명하였다. 배합사료가격 인상대책으로 축산농가에게 부족한 사료구입비로서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는 신규 「가축사료특별지원자금융통사업」시작 시점의 축종평균 농가실질부담금액을 톤당 51만 6,000천원으로 정하였다.

사료대책으로는 미이용자원의 사료화 촉진(1)지역생태사료 이용체제 확립지원, (2)미활용·저이용자원의 사료화 촉진, (3)사료용 쌀의 활용을 위한 조사·실증연구)이나,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기술 등의 보급추진, 관계자에게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에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시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으로서 신규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강화 긴급대책사업」은 전국적인 방역수준의 향상을 위해, (사)전국가축축산물위생지도협회를 주체로, 중앙에서 팜플렛 등의 작성·배포, 전국연수회 등을 개최하고, 지역에서는 (1)야생동물 등의 방제에 관한 생산현지에서의 연수회 개최, (2)양계밀집지대 등에서 공동으로 하는 차량소독, 쥐 등의 침입방지 대책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계명신문 발췌).